

#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

A Study on Principle of Christian Leadership

- 살전 2:7-12을 중심으로 -

임영효/ 신학박사, 고신대 신학과교수

Prof. Dr. Young-Hyo Im

1. 서론	22
2. 크리스천 리더십의 특징	24
3.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표	37
4. 결론	46

주요어 | 크리스천 리더십, 하나님 나라, 영광, 리더십의 목표

요약문 |

본 논문은 살전 2장 7-12절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와 특징을 다루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들 중 가장 초기에 기록되어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서신으로 사도 바울의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긴 사역자였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영적 지도력의 원리와 특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러나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일반 조직체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형태는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분명히 구별된 리더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전 2장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어진다.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영적 지도력이란 구성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롬 12:2).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살전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유형은 부모로서의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1) 사도 바울의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리더십이었다.

(2)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독특한 연대의식 속에서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리더십이다.

(3) 크리스천 리더십은 삶에 모범을 보이는 숭선수범하는 리더십이어야 함을 밝혀 주고 있다.

(4)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고 행사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5)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받은바 소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지도자가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온전히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는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부름받은 모든 크리스천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역현장에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 받아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리더십을 회복해 나가므로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영호 교수

고신대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M. Div.)학위 취득, 미국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석사학위(Th. M.), 선교학으로 박사(D. Miss)수여받음. 현재 고신대학교신학과 실천신학 및 선교학 담당교수로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쿰란출판사), 논문으로는 <기독교대학과 영적성장>, <초기한국교회성장요인>, <바울의 선교사역에 대한 고찰>,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전략의 현대적 적용>,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수의 역할과 사명> 등 다수가 있다.

## *Abstract*

### *A Study on Principle of Christian Leader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ristian leadership based on the First Thessalonians 2:7-12. The two books of Thessalonians were written earlier than other 13 epistles written by Paul the apostle. These two epistles are textbooks that explicitly show his excellent spiritual leadership. Paul is considered to be the greatest apostle among other apostles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onsidering this, the study about the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Paul's spiritu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oday's spiritual leaders.

Leadership i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those who lead people and organizations. However, since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eadership in the Christian community and Christian churches differs from that of other organizations of the world as mentioned in the Chapter 2 of the First Thessalonians, research for the spiritual leadership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Bible, spiritual leadership gives impression and inspiration to the followers, changing their lives and helping them follow the will of God (Rom 12:2). In the Chapter 2 of the First Thessalonians, Paul showed us that Christians should have parental leadership as follows:

(1) Paul's parental leadership gave life and vitality to the

Christians.

(2) Parental leadership should protect its members with close relationship, love, perseverance and tolerance. It also should nurture them and give them what they need.

(3) Christian leadership should give a model to the Christians and take the lead in all activities.

(4) Christian leadership should be expressed and practiced to its members with proper manners and ways.

(5) Christian leadership should help Christians live devotional life to their received calling by living lives worthy of God, who calls them into His kingdom and glory. This is the ultimate goal of the Christian leadership.

In order for the Christian leaders to fulfill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arents, they first need to bear fruits of the Holy Spirit and imitate the God's character more closely. By doing so, they can possess the heart of Jesus Christ and God can use them as spiritual leaders who can change themselves and other Christians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For this, they need to pass the courses of disciplines and training.

As a conclusion, today's Christians and their leaders need to follow Paul's leadership. They also need to recover their leadership as spiritual parents so that they may bear fruits to glorify God.

Key Words: Christian Leadership, Kingdom of God, Glory, Goal of Leadership

## 1. 서론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의 13서신들 중 가장 초기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서신으로 사도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와 사역의 열정과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의 교과서라고 말할 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역사학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족적을 남긴 사역자요 영적 지도자로서 단연 사도 바울을 손꼽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그의 성공적인 사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영적 지도력의 특징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연구는 참으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라고 말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리더십의 원리보다는 테크닉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도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한 리더십의 원리가 아니라 일반 세속적인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워런 W. 위어스비(W. W. Wiersbe)는 그가 쓴 「건강한 사역자입니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오늘날 일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진실로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잃

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세계에 순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경솔하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저버리고 있다. 그리고 최고 경영 책임자와 같은 목사, 관리위원과 같은 장로, 섬김받는 고객과 같은 교인이란 공통된 모습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목사와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기대를 슬며시 바꾸고 있다. 그 결과, 종종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고 고통을 겪게 된다. 어느 한 대교단에서 50명도 넘는 목사들이 압력에 밀려 사임한 일이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사역에 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sup>1)</sup>

그런데 본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최단 3주간에서 최장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동안에 그가 사역하고 이끌었던 한 공동체가 놀라움게 건강한 공동체로,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던 이런 모범적인 공동체로 성장해서 교회 본래의 역할과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 이런 공동체로 이끌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으며, 그의 지도력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 주게 되어진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말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특별히 영적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일

1) 워런 W. 위어스비 & 데이빗 W. 위어스비,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김모루 역, 디모데, 1998, pp. 46-47.

반 조직체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형태는 세상적인 리더십과는 분명히 구별된 리더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살전 2장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에 이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다.

## 2. 크리스천 리더십의 특징

성경적으로 말을 한다면, 지도력이란 구성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롬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갱신하므로 그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도력의 핵심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타내 보였던 리더십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 받고 따라가야 할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크리스천 리더십은 어떤 유형이어야 하며, 어떠한 성격과 특징을 가져야만 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물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살전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유형은 부모로서의 구별된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살전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는 언급 중 “유모”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상 “어머니”라고 번역해야 하는 단어로서 NIV판 영어성

경에서는 어머니(mother)라고 번역해 놓고 있다. 또한 살전 2장 11절에 “너희도 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역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유형이 바로 부모로서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성경학자인 존 스토틀(John Stott)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진정한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엄격함이 아니라 온유함이다. 우리는 엄격한 규율을 시행하는 사람보다는 교회가족의 다정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지난 35년여 동안 나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너무 독재적이고 사랑과 온유함이 부족하다고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만인제사장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 목사의 교황권을 믿기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sup>2)</sup> 그래서 스토틀(Stott)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유형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본 받아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회복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바가 있다.

워런 W. 위어스비(W. W. Wiersbe)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영적 부모’의 보호 하에 있기를 원하신다. 여기서 ‘영적 부모’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양하며(고후 3:1-3), 그들을 연단하고(고전 4:14-21) 보호할 수 있는(고후 11:1-6) 사역자를 말한다”<sup>3)</sup> 라고

2) 존 스토틀, 「리더십의 진실」, 정옥배 역, IVP, 2002, pp. 131-113

3) 워런 W. 위어스비 & 데이빗 W. 위어스비, op. cit., p. 44.

영적 지도자의 섬김의 사역이 바로 영적 부모로서의 사역인 것을 지적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성공하는 목사의 지도력의 비결 중 하나는 교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는 것이다(딤후 5:1-2)”라고 언급한바 있다.<sup>4)</sup>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Calvin)도 “어느 누구도 먼저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의 아버지 노릇을 하기 전에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때에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던 것이다.<sup>5)</sup>

지난 2004년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G12 국제 셀코리아 컨퍼런스의 주강사였던 세계적인 셀목회 지도자인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목사는 참석한 3000여명의 한국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목회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갖는 것이다.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이 영적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먼저 목회자들이 본질에 충실하라고 강조한바 있다.<sup>6)</sup>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리더십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부모로서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

4) 워런 W. 위어스비 & 데이빗 W. 위어스비, op. cit., p. 86.

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0), p. 345.

6) 국민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신문 26면에서 인용.

### (1) 사도 바울의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리더십이었다.

고전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친히 낳은 영적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 새 생명을 형성하여 낳으므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다. 그래서 새 생명이 출생하여 자라고 있는 그 가정은 온통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환호와 삶의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이런 활기찬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삶의 활력과 소망을 가져다주므로 기쁨과 행복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신명나게 즐거움으로 일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삶과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깨우쳐 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나가므로, 새 생명의 역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전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스승과 아버지를 대조시켜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승이라고 하는 말은 몽학선생, 가정교사, 요즈음으로 말하면 과외선생을 뜻하는 단어로서 어떤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의무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책임을 이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따라서 과외 선생으로서의 리더십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나 지시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깊은 사랑의 동기에서 일을 하지 못하므로 구성원들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그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인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영적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삶의 정신과 목표와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구성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으로 이런 리더십만이 그 구성원에게 참된 생명과 삶과 사역의 끊임없는 영감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인 페리 G. 다운즈(Perry G. Downs)박사도 “구약성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 잠언에 사용된 용어들은 이러한 관계를 암시해 준다. 교육은 비인격적이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상관적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셨다”라고 적절히 언급한바 있다.<sup>7)</sup>

7) 페리 G. 다운즈, 「기독교 교육학개론」, 업성옥 역, 은성, 1998, p. 39.

(2)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돈독한 연대의식 속에서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리더십이다.

살전 2장 7절과 8절에서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고 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피와 살과 생명을 나누어 준 당사자가 되어 어찌지 때문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제한이 있을 수가 없으며, 피를 나누는 자녀이고 한 가족이기에 자녀가 잘 하여도 사랑하고 잘못하여도 더욱 측은히 여기고 오래참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과오와 잘못이 있을지라도 징계를 할지언정 영원히 그 공동체에서 제명하거나 축출하는 이런 일이 가정 공동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으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드러내 보여준다. 건강한 가족의 특징이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즉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정의 특징이다.

그러나 세상적인 리더십은 어떠한가? 그 공동체에서 규율을 여기거나 과실이 있을 경우, 또한 무엇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때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명을 하고, 해고 처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리더십은 오래 참고 관용하는 사랑으로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 고전 13장 4절에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바로 오래참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대인관계에서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오래참음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엡 4장 2절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음으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 서신 살전 5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는 “마땅히 주의 증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이 바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잘 참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고후 10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음을 말씀하였던 것이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고후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 사도된 표식이 바로 참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오래참음이 얼마나 부모로서의 영적 지도자에게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탕자 비유가운데서도 사실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탕자였지만 그 아버지는 오래참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 아들이 집으로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먼저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춤으로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지난날의 잘못을 아무런 조건없이 용서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오래 참고 무조건 용서하고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의 간절한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부모는 그 자녀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질 때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뛰어드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칼빈(Calvin)은 “이 비유를 통해 그는 자신이 데살로니가인들 사이에서 영광이나 이득을 도무지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표현하고 있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는 권위를 주장하거나 위엄을 뽐내는 일이 결코 없다... 그와 동시에 참 목사 취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정을 품고 자신들의 생명보다 교회의 안녕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말한다.<sup>8)</sup>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부모로서의 지도자도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이런 자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공급해 줄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마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

8) Calvin, op. cit., p. 344.



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부모는 언제나 자식의 필요를 공급해 주며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미국의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다음과 같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몇 가지 필요한 성품을 키워야 한다. 경건한 지도자는 목자와 같아야 한다. 목자는 자상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야 한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고 바르게 하고 보호하고 먹인다.”<sup>9)</sup> 19세기 영국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자 복음전도자로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발휘했던 찰스 스펄전(Charles H. Spurgeon)도 기독교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라...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의 거룩한 일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 특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버려야 한다.”<sup>10)</sup>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 구성원들을 무조건적인 창조적인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고 오래참음으로 구성원들의 안전과 성장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사역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9) 글렌 와그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조계광역, 생명의 말씀사, 2004, p. 86.

10) C. H. Spurgeon, *An All-Round Ministry*, Pasadena, Tex.: Pilgrim, 1973, p. 267.

### (3) 크리스천 리더십은 삶에 모범을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어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옹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라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리더십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 “거룩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삶,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 “옹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행위를 뜻하는 말이며,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모범적인 단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sup>11)</sup>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살만한 행동이나 모순된 행동이 없었다는 바울 자신의 고백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 세울 만큼 이 일에 부끄럽지 아니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므로 크리스천 리더십의 중요한 일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은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종일관하게 나타내 보였던 것을 여러 바울 서신들이 증거해 주고 있다. 고린도교회에 보낸 서신인 고전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인 빌립보서 3장 17절

11) F. F. Bruce, *Word Biblical Commentary: 1 & 2 Thessalonians*, (Waco, Texas: Word Books, 1982), p. 35.

에서도 “형제들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언급하였고, 살후 3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말이나 명령으로 지도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여줌으로서 인도해 나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요 사역의 계승자로 양육하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가운데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딤후 4:12)라고 권면하였던 것이다.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모가 삶을 살아가는 그대로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인도자의 행실과 그 삶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 살게되어지고 사역에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앞서 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글렌 와그너(Glenn Wagner)는 다음과 같이 영적 지도자의 언행 일치와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든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에 내려면 반드시 교인들이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교인들은 앞에서 일하는 목회자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지를 늘 관찰한다. 목회자의 언행이 일치할 때 교인들은 비로소 그를 믿고 따른다...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분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언행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목회자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교인들은 결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실망하

고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든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이기 쉽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교회는 결코 순조롭게 성장할 수 없다.”<sup>12)</sup>

(4)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성원들 개개인에게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고 행사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

살전 2장 11절에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은 구별된 형태로 리더십을 행사하였음을 언급한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억박지르거나, 위협을 주거나 협박하거나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이런 세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적절한 언어적인 형태로 지도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 사역자가 사역해야 할 기독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 단계가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개인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면하고”라는 말씀은 “결으로 부르다”라는 뜻으로 구성원들이 무지하거나 당황할 때 결으로 불러 조용히 권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여 나아가게 하는 이런 도움을 제공해 주는 사역을 의미하고 있다.<sup>13)</sup> 이것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행동지침을 주는 것을 뜻한다.

그 다음으로 “위로하고”라는 단어는 놀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을 어

12) 글렌 와그너, *op. cit.*, p. 303.

13) 이순한, 「바울 소서신 야고보서 강해」,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2, p. 215.

루만저 주고 구성원들이 연약해질 때에 붙들어 주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살전 5장 14절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라는 말이 바로 본문의 “위로하고”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의 “위로하고”라는 말은 마음이 약하고 소심한 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계하노니”라는 말은 “증인을 소환하다, 엄숙히 권면하다, 엄숙히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sup>15)</sup>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아가거나, 게으르거나, 방탕하거나, 의심에 빠져 있을 때에 확실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여 바로잡아 주는 사역을 뜻하는 단어이다.<sup>16)</sup> 또한 “경계한다”는 것은 “증거하다, 증거를 대다”는 뜻으로 쓰여져서 사역자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 간증을 하므로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7)</sup> 더 나아가, “경계한다”는 단어는 “연단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적절하고도 강한 훈련을 제공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성원 전체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을 상대로 사역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글렌 와그너(Glenn Wagner)는 다음과 같이 개별적인 돌봄과 양

14) Calvin, op. cit., p. 346.

15) D. Edmond Hiebert,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p. 109.

16) 조병수, 「주해 테살로니가전서」,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p. 72.

17) 워런 위어스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가?」 나침반, 1985, p. 50.

18) 브루스 B. 바튼, 닐 윌슨, 린다 K. 테일러, 데이비드 R. 비어만, 「테살로니가전후서」,

박태영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p. 61.

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각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인들의 영적 성장은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인들의 반응이나 성장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 신자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규모나 숫자와 무관하다. 각각의 신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sup>19)</sup> 종교개혁자 칼빈(Calvin)도 “모두를 상대로 하는 훈계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특수한 처방이 아니고서는 치료되거나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개별적인 지도와 처방이 필요함을 언급한 바가 있다.<sup>20)</sup>

그러므로 효과적인 리더십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인적인 성격과 재능과 형편과 환경을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형태의 도움과 지원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질 때에 가능하게 됨을 밝혀주고 있다.

### 3. 크리스천 리더십의 목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은 크리스천 리더십은 분명한 한가지 목표를 지향해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살전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

19) 글렌 와그너, op. cit., pp. 296-297.

20) Calvin, op. cit., p. 345.

요한 목표가 구성원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인도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살전 1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프(John Piper)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말씀이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은혜롭고, 강하신지 보여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다”<sup>21)</sup> 종교개혁자 칼빈(Calvin)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소명에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의 사역의 목표임을 밝혀주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다.<sup>22)</sup>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는 영적 실재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시는 유업을 의미한다.<sup>23)</sup> 노발 겔덴휘스(Norval Geldenhuys)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활동(ruling activity)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행위라는 점에서의 거룩한 통치(divine rule)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

21) 존 파이프, 「목상 ④」, 정영재 역, 좋은 씨앗, 2001, pp. 194-195.

22) Calvin, op. cit., p. 346.

23) 조오지 엘톤 레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The Gospel of the Kingdom), 신성수 역,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p. 16.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마지막 때에 완전히 실현되어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의 통치와 역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4)</sup>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뜻한다.

브루스(F. F. Bruce)는 본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sup>25)</sup> 레온 모리스(Leon Morris)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준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현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26)</sup>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므로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뜻한다.

24) Norval Geldenhuy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51, p. 179.

25) F. F. Bruce, op. cit., p. 37.

26) Leon Morris, *1 & 2 Thessalonians*, London: The Tyndale Press, 1956, p. 53.

마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게할더스 보스(Gerhardus Vos)는 “마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따라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고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이끌고 도와주어야만 할 것이다.

(3)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뜻한다.

롬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음식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이고 주변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공동체에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적극적인 면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의에 기초하여 의인의 신분에 합당한 정직과 공평과 진실의 성

27) 게할더스 보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 56.

28) Marvin Vincent,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89, p. 168.

품과 특성을 뜻하는 것이며,<sup>28)</sup> 평강은 불안과 분열과 분쟁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안정과 연합과 조화와 화목을 조성해 나가는 특성을 뜻하는 것이며, 희락은 시련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천안대학교 홍인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이미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또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김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대망하며 살고 있다.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수평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삶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에 대해 사랑의 책임을 지는 것(‘의’ = 공동체에 대한 신실함)이고, 상호 조화와 복지(‘화평’)에 공헌 하는 것이며, 의와 화평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sup>29)</sup>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이 지배적이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 지도자의 역할과 사명이 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와 구성원들은 롬 14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의 공동체 속에 부름받은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타내어야 하는 본질적인 삶의 특성과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9)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2001, p. 184.

(4)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삶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

마 25장 46절에서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로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sup>30)</sup>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요 10:10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믿는 자로 하여금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요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믿는 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은 요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여기에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sup>31)</sup>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가 인도하는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서 이전보다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그의 영광으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본문 살전 2장 12절에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종말론적인 영광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광이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살후 1장 12절을 설명하면서 “그의 백성 안에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그

에 따라 그의 백성들이 받는 영광은 전적으로 마지막 날에만 일어날 변화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지금 시작된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것이 적절하게 끝나려면 지금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32)</sup> 호워드 마샬(I. Howard Marshall)도 본문과 관계가 있는 살후 1장 12절에서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실과 활동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더욱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up>33)</sup>

그러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는가?

(1) 그리스도인이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요 17장 22절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이 십자가로 정점에 도달하는 겸손한 봉사의 길을 줄 곧 따라가는 행위인 것처럼, 제자들의 참 영광도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가야 할 겸손한 섬김의 길에 있다”고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이 진정한 순종과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0) 조오지 엘튼 래드, op. cit., p. 87.

31) Ibid., p. 93.

32) John Stott, *The Gospel & The End of Time: The Message of 1 & 2 Thessalonia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p. 155.

33) I. Howard Marshall,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1 and 2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3, pp. 183-184.

(2) 그리스도인이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에 관하여 브루스(F. Bruce)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풍성히 맺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34)</sup> 빌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언급 역시 성령의 9가지 열매들(갈 5:22-23)과 영혼을 건지는 일들의 풍성한 수확(잠 11: 30)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sup>35)</sup>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자신과 그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요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34) F. F. Bruce,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83, p. 310.

35)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Philipp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2, p. 62.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며,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담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존귀케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마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성실함과 충실함과 사랑과 자기 희생과 인내와 열의 등을 의미한다.<sup>36)</sup> 또한 살 후 1장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주님을 존귀케 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할더스 보스(Gerhardus Vos)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어지며, 은혜로 주어지지만 각 제자마다 그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상급은 여기 아래의 세상에서 이룬 의의 과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7)</sup> 따라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 구성원들이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6) 핑크, 「산상수훈(상)」, 지상우 역, 엠마오, 1986, p. 65.

37) 게할더스 보스, op. cit., p. 67.

(5)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브루스 밀른(Bruce Milne)은 요한복음 17장 4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는 언급에 대하여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분께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전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또는 모든 필요를 다 돕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 능력의 한계 내에서 그 특정한 일을 찾아 행할 때 성취감과 평안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sup>38)</sup> 그러므로 크리스천 지도자는 구성원들 개개인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과 구체적인 일을 발견하게 도와주므로 그 일을 탁월하게 수행해 나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목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 4. 결론

예수님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의 발자취를 남겼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

38) 브루스 밀른, 「말씀이 육신이 되어(The Message of John)」, 정육배 역, IVP, 1995, pp. 316, 320.

사로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의 모델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리더십의 모범을 보여준 위대한 사역자였음을 그의 첫 번째 선교서신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는 지도자의 이름과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너무도 많지마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찾아 보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처해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에 소개되고 있는 다양한 리더십의 이론들을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따르므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불행스러운 결과들을 야기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리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 이 시대의 사역의 현장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영적 공동체로서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인정해 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아 주며, 구성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구성원들을 대하고, 성경적인 원리와 방법에 근거하여 영적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야 함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즉, 크리스천 지도자는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무장되어 있는 영적 부모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천 지도자가 영적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자신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



님의 성품을 보다 온전히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그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미성숙한 지도자는 명예와 이권에 사로잡혀 자기 유익을 앞세우므로 다른 구성원들을 이용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에 엄청난 폐해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는 평소에 자기 절제와 성숙한 신앙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사명에 겸손히 헌신하는 사역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야만 한다. 이것은 지도자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사역이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받은바 소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의 궁극적 목표임을 기억하여 자신이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부모로서의 크리스천 리더십을 발휘하므로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Bruce, F. F. *Word Biblical Commentary: 1 & 2 Thessalonians*, Waco, Texas: Word Books, 1982.
- \_\_\_\_\_.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83.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60.
- Goldenhuy, Norva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Commentary on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51.
- Hendriksen, William. *New Testament Commentary: Philippians*, London: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2.
- Hiebert, D. Edmond. *1 & 2 Thessalonians*, Chicago: Moody Press, 1992.
- Marshall, I. Howard.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1 and 2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3.
- Morris, Leon. *1 & 2 Thessalonians*, London: The Tyndale Press, 1956.
- Stott, John. *The Gospel & The End of Time: The Message of 1 & 2 Thessalonians*,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1.
- Spurgeon, C. H. *An All-Round Ministry*, Pasadena, Tex.: Pilgrim, 1973.
- Vincent, Marvin. *Word Studies in the New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Eerdmans, 1989.
- 게할더스 보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국민일보. 2004년 10월 27일자 신문.
- 글렌 와그너.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04.
- 브루스 밀튼. 「말씀이 육신이 되어(The Message of John)」, 정육배 역, IVP, 1995.
- 브루스 B. 바톤, 닐 윌슨, 린다 K. 테일러, 데이비드 R. 비어만. 「데살로니가 전후서」, 박태영 역, 성서유니온선교회, 2002.
- 워런 W. 위어스비 & 데이빗 W. 위어스비.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김모루 역, 디모데, 1998.
- 워런 위어스비.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수 있는가?」, 나침반, 1985.
- 이순환. 「바울 소서신 야고보서 강해」,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92.

조병수. 「주해 데살로니가전서」, 합동신학대학원 출판부, 1998.

조오지 엘든 래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The Gospel of the Kingdom)」, 신성수 역,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존 스토틀. 「리더십의 진실」, 정옥배 역, IVP, 2002.

존 파이퍼. 「묵상 ④」, 정영재 역, 좋은 씨앗, 2001.

페리 G. 다운즈. 「기독교 교육학개론」, 엄성옥 역, 은성, 1998.

핑크 「산상수훈(상)」, 지상우 역, 엠마오, 1986.

홍인규. 「로마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서유니온, 2001.

# 평화(shalom): 하나님을 중심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즐김

Peace(shalom):  
Harmony and Enjoyment in his/her relationship with  
God, with Self, with Fellows, with Creation(Nature)

김성수 / 교육학 박사, 고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Prof. Dr. Sung-Soo Kim

I. 서론	- 55
II. 평화(shalom)의 일반적 의미	- 55
III.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의	- 58
IV. 평화(shalom)의 성경적 의미	- 61
V. 평화를 위한 교육	- 71
VI. 맺는 말	- 76